

KDI 경제전망 | 수정

KDI ECONOMIC OUTLOOK | UPDATE

2025년 8월



KDI 경제전망 | 수정

KDI ECONOMIC OUTLOOK | UPDATE

2025년 8월

KDI

KDI 경제전망 연구진

총 합 예 측	관 측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 김 지 연(연구위원) 김 준 형(연구위원) 이 유 진(전문연구원)
국 내 총 생 산	생 산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 이 유 진(전문연구원)
경 기	기	김 지 연(연구위원) 이 지 현(전문연구원)
소 비	비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 류 지 영(전문연구원)
설 비 투 자	투 자	송 호 규(연구위원) 하 정 우(연구위원)
건 설 투 자	투 자	황 세 진(전문위원) 탁 현 삼(인턴)
지식재산생산물투자	투 자	송 호 규(연구위원) 하 정 우(연구위원)
수 출 입	출 입	김 준 형(연구위원) 신 웅 재(전문연구원)
노 동 시 장	시 장	김 지 연(연구위원) 신 나 라(전문연구원)
물 가	가	마 창 석(연구위원) 이 하 영(연구위원)
금 융 시 장	시 장	이 서 현(연구위원) 김 수 지(연구위원)
부 동 산 시 장	시 장	이 승 희(연구위원) 임 영 주(전문연구원)
재 정	정	신 승 룡(연구위원) 노 희 원(전문연구원)
세 계 경 제	경 제	이 상 규(전문위원) 이 유 진(전문연구원) 류 지 영(전문연구원) 김 수 지(연구위원)
편 집 간 사	간 사	이 상 규(전문위원) 전 해 지(전문연구원) 신 용 숙(선임행정원)

『KDI 경제전망』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단기 경제전망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과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경영과 학계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 4회 발간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.

전화번호 044-550-4114 팩스번호 044-550-4088

※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(<http://www.kdi.re.kr>)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2025년 8월

KDI 경제전망 | 수정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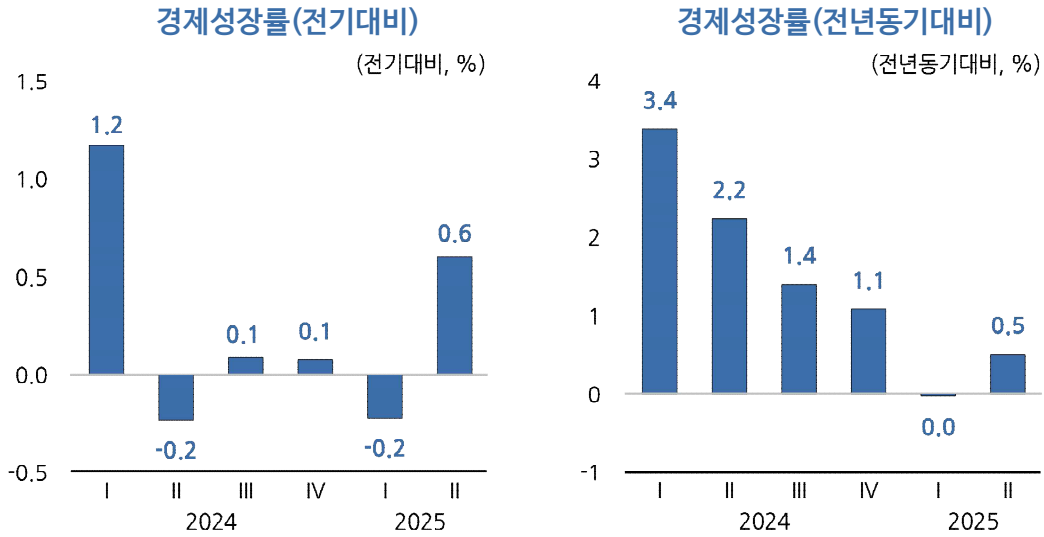
I.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	1
II. 2025~26년 국내경제 전망	9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	11
2. 2025~26년 국내경제 전망	12
3. 전망의 위험요인	14

I

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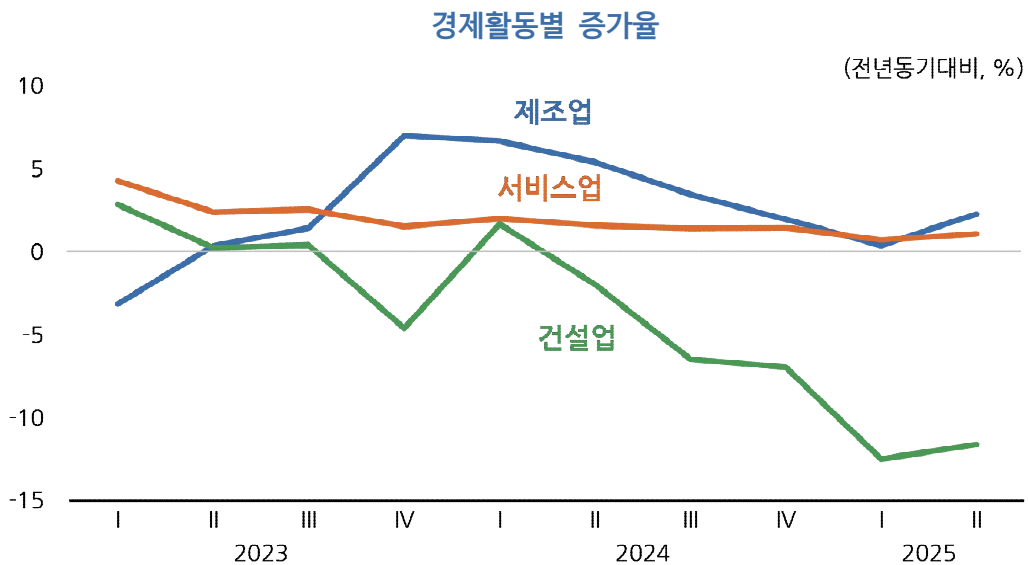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,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름.

- 2/4분기 국내총생산(GDP)은 수출 개선,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대비 0.6% 증가하였으나, 전년동기대비로는 0.5%의 낮은 증가율에 그침.

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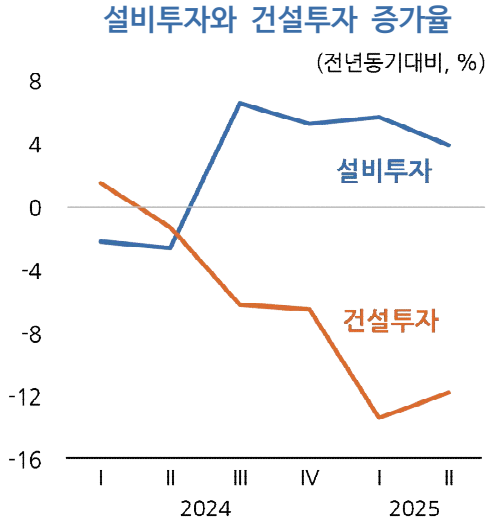
-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, 서비스업이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업도 위축된 모습을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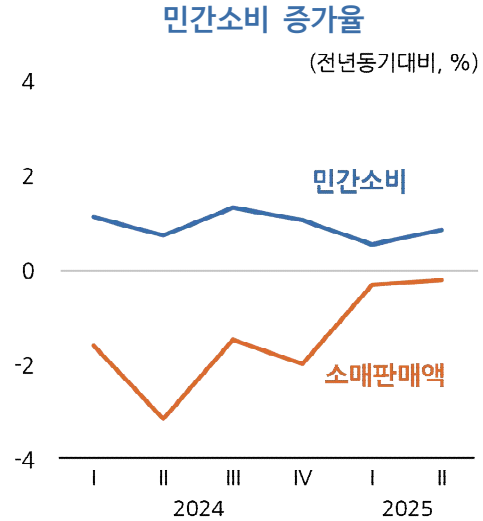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.

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,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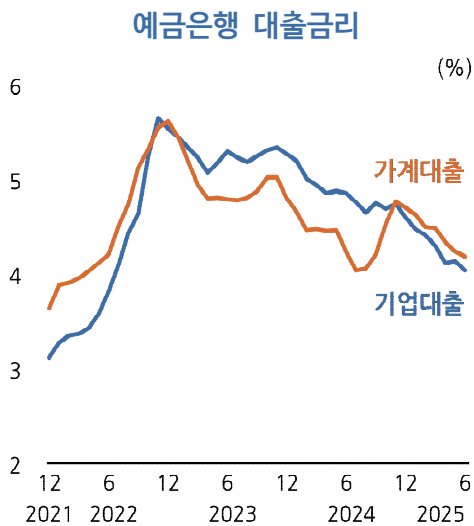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조정되고 있으며, 민간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무름.


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.



-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작년 말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도 최근 빠르게 회복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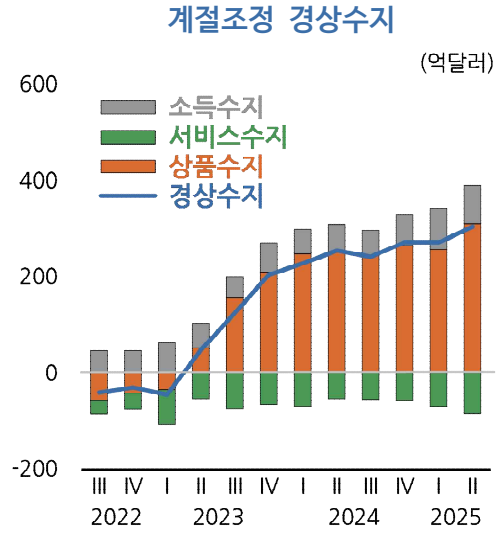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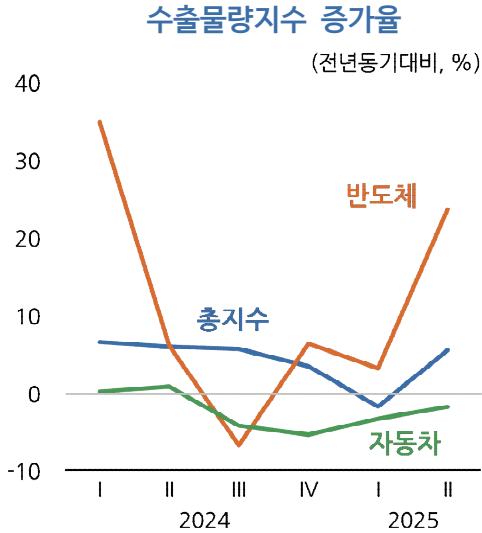


주: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임.
자료: 한국은행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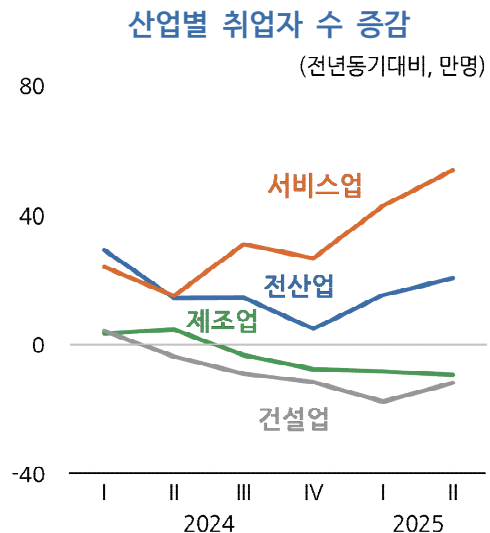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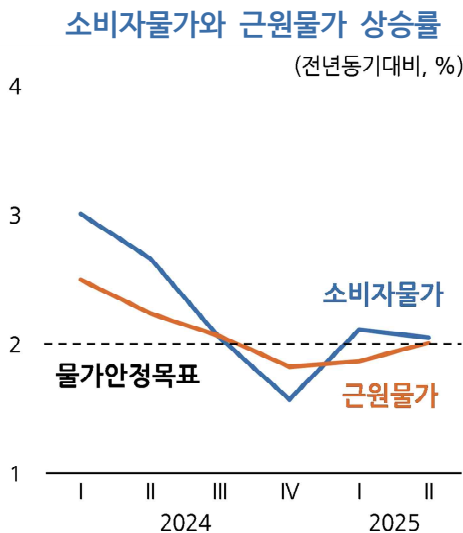
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경기 호조세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끄는 모습

●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물가상승세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,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



자료: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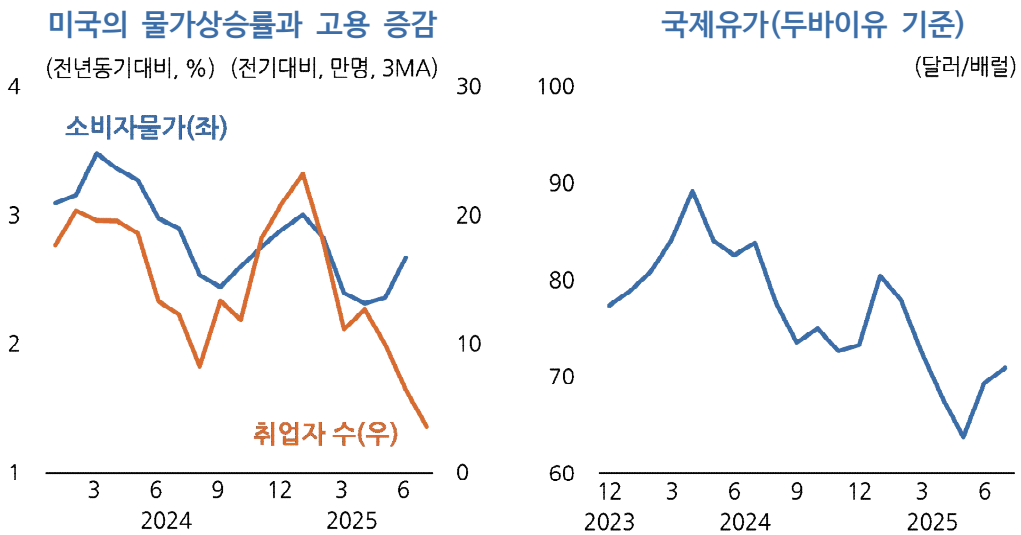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율과 불확실성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.

-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930년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, 통상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10년 대비 15배 정도 높은 수준임.



자료: The Budget Lab at Yale; Economic Policy Uncertainty.

- 관세인상의 효과가 파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,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소 상승



자료: Bloomberg; 한국석유공사.

■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, **금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**

- 관세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하반기 이후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건설경기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음.
-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세, 소비부양책 등으로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차 완화될 전망
- 농산물가격 등 공급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하나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됨에 따라, 물가상승세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
Ⅱ

2025~26년 국내경제 전망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2. 2025~26년 국내경제 전망
3. 전망의 위험요인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
■ 2025~26년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인상 등으로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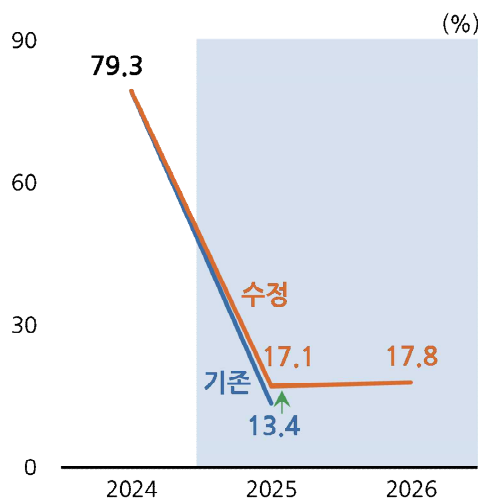
- 최근 IMF는 금년과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.0%, 3.1%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(2011~19년)의 평균 성장률(3.5%)보다 낮은 수준임.
- 최근 WSTS는 2025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을 기존(202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) 전제(13.4%)보다 높은 17.1%로 전망
- 미국 관세율은 현재 정해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우리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기존 전제(14.1%)와 유사한 14.5%로 전제
 - 최근 발표된 반도체 관세는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여,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음.

■ 원유 도입단가(두바이유 기준)는 수요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의 배럴당 80달러에서 2025년 71달러, 2026년 6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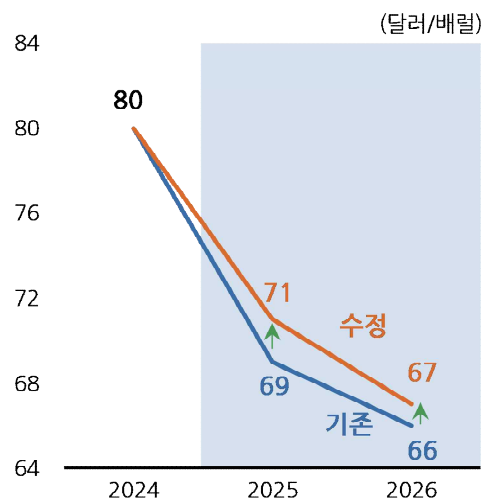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전제(69달러, 66달러)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

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

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전제



국제유가 전제



주: 기존 전제는 2025년 상반기(5월) KDI 경제전망 전제이며,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임.
 자료: WSTS; 한국석유공사; KDI 자체 전망.

2. 2025~26년 국내경제 전망

■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0.8% 성장하는 데 그친 후,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.6% 성장할 전망

- 금년 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상향 조정하였으나, 건설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(202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)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
-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1.3%, 1.5% 정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
 -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.2%p 상향 조정
-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1.8%, 1.6%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
 -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존 전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.
- 건설투자는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며 작년(-3.3%)에 이어 금년(-8.1%)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겠지만, 건설수주 회복이 점차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2.6% 정도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될 전망
 -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한 가운데,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, 대출 규제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.9%p 하향 조정
-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라 작년(6.8%)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.1%, 0.6% 정도 증가할 전망
 -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상품수출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1.2%, 0.2%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
 - 글로벌 반도체경기 전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, 선제적 수출 효과가 기존 전망에 비해 크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, 금년 상품수출 증가율을 1.6%p 상향 조정

■ **경상수지는 반도체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**

- 작년(990억달러)에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각각 1,060억달러, 910억달러 정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.
- 글로벌 반도체경기 전제를 상향 조정하면서 수출 물량과 가격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금년 경상수지 흑자폭을 140억달러 정도 상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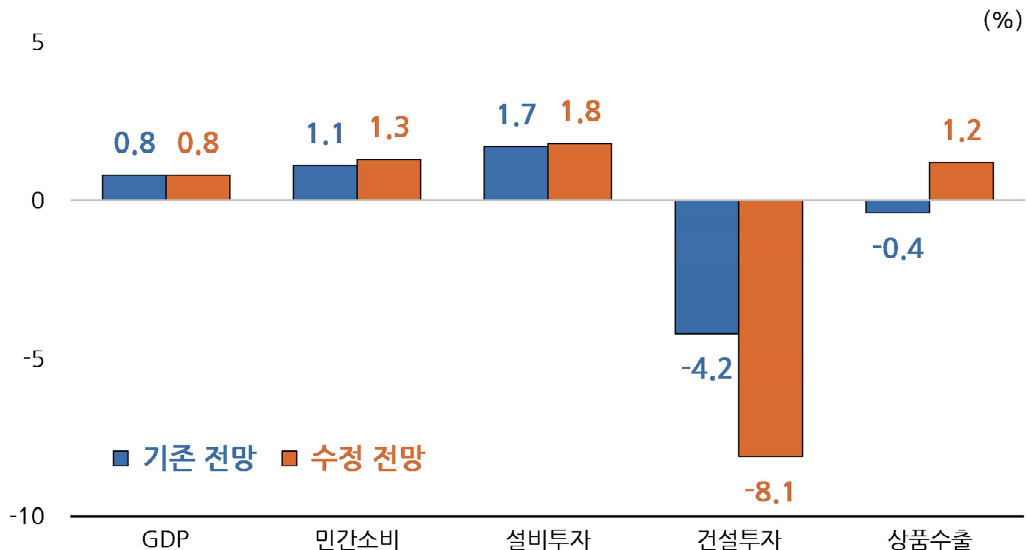
■ **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성장세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**

- 유류세 및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작년 2.3%에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.0%, 1.8% 정도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
- 근원물가 상승률도 금년과 내년에 작년(2.2%)보다 낮은 1.9%로 예상됨.
- 기존 전망에 비해 국제유가 전제와 민간소비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을 각각 0.3%p, 0.1%p 상향 조정

■ **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6만명에서 금년 15만명, 내년 11만명 정도로 축소될 전망**

- 기존 전망에 비해 정부 일자리 규모 및 고용과 밀접한 민간소비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6만명 상향 조정

2025년 국내경제 전망 비교



주: 기존 전망은 2025년 상반기(5월) KDI 경제전망을 의미함.
 자료: KDI 경제전망.

3. 전망의 위험요인

■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

-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, 브라질, 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
-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
 - 대만, 아세안 등에서 우리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반도체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음.

-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

2025~26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, %p, 억달러, 만명)

	2024 ^p	2025 ^p			2026	2025 수정폭 ²⁾	2026 수정폭 ²⁾
	연간 ^p	상반기 ^p	하반기	연간	연간		
국내총생산	2.0	0.2	1.3	0.8	1.6	0.0	0.0
총소비	1.4	1.2	2.0	1.6	1.7	0.2	0.0
민간소비	1.1	0.7	1.8	1.3	1.5	0.2	-0.1
총고정투자	-0.8	-4.0	-1.4	-2.7	2.2	-1.8	0.2
설비투자	1.7	4.8	-1.0	1.8	1.6	0.1	0.0
건설투자	-3.3	-12.4	-3.8	-8.1	2.6	-3.9	0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1.2	1.3	2.9	2.2	2.1	0.2	0.2
총수출(물량)	6.8	2.8	1.4	2.1	0.6	1.8	-0.2
상품수출(물량)	6.4	1.6	0.9	1.2	0.2	1.6	-0.3
총수입(물량)	2.5	3.1	0.9	2.0	1.2	1.2	-0.2
상품수입(물량)	1.3	1.8	0.3	1.0	0.7	1.0	-0.2
경상수지	990	494	568	1,062	912	142	108
상품수지	1,001	520	552	1,072	935	120	87
수출(금액)	6,962	3,388	3,487	6,874	6,742	174	160
(증가율)	8.2	-0.3	-2.1	-1.3	-1.9	2.5	-0.1
수입(금액)	5,961	2,868	2,935	5,803	5,807	56	73
(증가율)	-1.6	-2.5	-2.8	-2.6	0.1	1.0	0.3
서비스수지, 본원·이전소득수지	-11	-26	17	-9	-23	24	20
소비자물가	2.3	2.1	1.9	2.0	1.8	0.3	0.0
근원물가	2.2	1.9	1.9	1.9	1.9	0.1	0.0
취업자 수(증감)	16	18	13	15	11	6	4
실업률 (계절조정)	2.8	3.1	2.6	2.9	2.9	-0.1	-0.1

주: 1) p는 잠정치임.

2) 수정폭은 해당 연도에 대한 2025년 상반기(5월) 전망치 대비 격차를 의미함.